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행정국 자치행정과

자치행정과장	송광남	2133-5800
행정협력1팀장	이윤창	2133-5812
담 당 자	윤경혜	2133-5841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2쪽

서울시, '선제적 극한호우 대응' 위해 자치구에 250억 원 지원

- 선제적 수해 대비 예산지원을 통한 시민 안전 확보...산속한 사후 조치로는 부족
- 하수·하천 시설물 등 정비 및 점검, 이재민 대피시설 설치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사용
- 국지성 집중호우 지속으로 수해 발생 시 긴급 피해복구예산 추가 지원할 계획

- 서울시는 지난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마로부터 예상되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50억 원을 자치구에 지원한다고 밝혔다.
- 지난해 8월, 서울시는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인명·재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총 657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. 그러나 시는 아무리 신속한 대응이라 하여도 작년과 같은 사후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,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.
- 특히 올해는 슈퍼 엘니뇨 현상 등 기후환경변화로 강우량 증가가 일찍 부터 예상됨에 따라, 지난 5월 하수관로 준설 및 빗물받이 정비 등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약 322억 원의 예산을 기지원하였고,

장마에 들어선 현재 작은 사항까지 세세하게 조치하고 혹시라도 있을 피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.

- 장마철 기간 시작 이후 누적된 비로 지반이 약화되어 추가 강수 시 안전 사고 및 수해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.
- 자치구별 지원금액은 침수취약지역 및 전년도 재해 상황 등을 고려해 차등하여 지원된다.
 - 하수 시설물 : 담배꽂초 제거 등 하수관로, 빗물받이, 맨홀 정비
 - 사면 : 산사태 대비 및 등산로 정비, 토사 준설, 방수포, 옹벽 정비 등
 - 도로 : 포트홀, 도로시설물 정비, 폐기물처리 등
 - 가로수 : 위험수목 제거, 풍수해 대비 가로수 점검 등
 - 하천·공원 : 진입로, 산책로, 녹지대 등 하천 및 공원시설물 정비
 - 공공시설 : 시설 누수 복구, 이재민 대피소 설치 등

□ 지원된 예산은 자치구별 자체 계획에 따라 하수·하천 시설물 정비, 도로 및 사면 점검 등 집중호우 피해 예방 비용과 이재민 발생 시 대피시설 설치 등 긴급조치 예산으로 사용된다.

□ 국지성 집중호우가 지속되어 수해가 발생할 경우, 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폭우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조속히 지원하고 시설물을 복구하기 위한 긴급 예산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.

□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“서울시는 각 자치구의 특성에 맞게 시설물 정비 등 폭우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25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한다.”며 “앞으로도 선제적인 자치구 지원을 통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